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고기 입에서 얻은 성전세

(마 17:24-27)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받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24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던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세 반 세겔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나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25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금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눈물과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지 않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주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낚시를 하여 맨 먼저 잡힌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들어 있을 것이니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레슨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베드로의 수고를 통해 돈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협력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입에 들어있는 돈은 한 세겔이었고,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다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매 순간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과 감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Temple Tax gained from the mouth of fish

(Matt.17:24-27)

In the God's word, there are not only the word of blessing, desire, and joy but also the word of blame and punishment. But most people have a bad habit to take their choice from God's word.

Such people cannot possess a healthy faith.

The text begins like this.

“After Jesus and his disciples arrived in Capernaum, the collectors of the drachma tax came to Peter and asked,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v. 24)

Capernaum was the place where Jesus preached and called his disciples. So, most of disciples including Peter were born in Capernaum. When Jesus arrived there, the collectors of the two-drachma tax waited. The temple tax of two-drachma was not a small amount of money. “What do you think, Simon?” Jesus asked, “From whom do the kings of the earth collect duty and taxes—from their own sons or from others?”

(v. 25)

Jesus wanted to solve the tax problems with Peter. When we shed tears and sigh with a hard problem, Jesus never ignores us. All the more, he sighs rather than us, and understands our pain.

Though it is not right for Jesus as a son of God to pay the two-drachma tax, he said to disciples to pay it, so that they might not offend collectors. And then, Jesus and Peter concluded to pay the temple taxes. If so, the problem was where they could get the money to pay it. But Jesus raised money with a very special way. Jesus said that Peter would fish and open the mouth of the first fish he caught, there take the two-drachma coin, and pay our taxes with it.

Here, we can learn a few and very important and spiritual lessons. First, because Jesus is omnipotent, he is able to do anything. But he let Peter receive the money. Second, it is God who always cooperates with us to accomplish his work. Even now, God wants to work with us. When we obey God's word with our faith, the wonderful miraculous work will be achieved in our life. Third, God gives us finances for our needs. The money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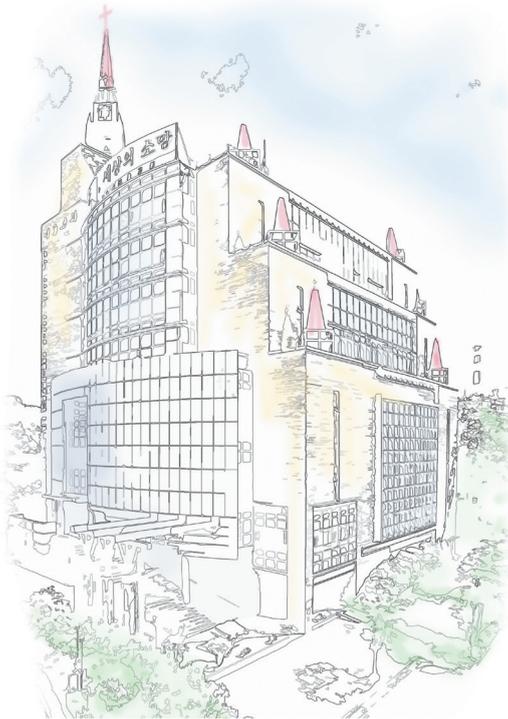
the mouth of fish was just the two-drachma. Peter was given enough to pay the tax. The money was given by God.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live our life with a confession of faith, God will wonderfully use us as his will desires.

It is God who is omnipotent and creator. It is his eternal love who loves us to the death. Our God has an absolute sovereignty to spread out his will in the midst of the world.

By looking such a wonderful God, giving thanks to him in every moment, and experiencing the grace of which he fills our necessity whenever we nee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God's people of faith and thank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말씀 · 기도 · 전도

# 사명자대회 발대식 - 오늘 I · II · III 부 예배 시

새생명축제 : 10월24일(금) / 10월26일(주일) I · II · III 부, 찬양 예배 시  
특별새벽기도회 : 11월17일(월)~11월22일(토) / 강사: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는 교회 설립 50일 전부터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해마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함으로써 교회 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맞고 있다.



는 소리가 있으리라"(이사야 51:3)이다.

사명자 대회는 기도 운동이다. 24시간 연속 기도회(자율동참), 다니엘 기도 (오전 10시, 오후 10시, 열열이 기도) 등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명자대

회는 전도운동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그 전도의 결실을 이루는 새생명축제는 10월 24일(금) / 10월 26일(주) 1, 2, 3부 찬양예배시에 진행 된다. 특별새벽기도회는 11월 17일(월)~11월 22일(토)까지 「복 있는 자의 삶」(마 5:12)이란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강사로 선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이에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4년 사명자대회를 10월 5일(주)~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시행한다. 2014 사명자대회 주제성구는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8)

(문 148) 요엘서에서 유다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3:6)한 것으로 보아 본서의 기록년대가 아무라 빨리 잡아도 4세기 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을 한 때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헬라 족속은 유다 영토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이들과 가나안 영토에서 아주 멀리 있던 노예시장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을 급습한 이들을 말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정복이후 헬라인들은 베니게 이스라엘 등 모든 지역을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는 당시 세계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헬라인들이 근동지방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주전 480-479년에 고레스의 헬라 정복이 실패된 후 헬라인들은 공격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동전들은 6세기 후반의 팔레스타인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헬라 용병이나 투기꾼들이 레스비안의 시인 알카우스(Alcaeus)처럼 초기에 바벨론 군대나 법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알카우스는 주전7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신-바벨론 사람들의 식량 정액을 기록한 책이 F.F. Weidner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와이드너는 식량의 정량을 수여받은 이오니아 목수들과 배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Edwin Yamauchi는 이 비문을 주전1500년으로 잡고 애굽 베이룣 드로베니게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Greece and Babylon, Grand Rapids : Baker, 1967, p33)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요엘은 주전9세기 후반의 헬라인들이나 근동지방에서 노예를 체포하기 위해 헬라 항구로 갔던 노예상인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어느 왕 때에 예언했다는 말이 없어 연대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선지서 순서에서 요엘서가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은 유다의 요아스왕(주전830년경)때쯤 쓰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약 주전755년)보다 일찍이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주 계속)



사명자대회

## 사명자, 24년을 돌아본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 설립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여 명의 성도들이 논현동의 한 건물(전인화권사 소유)을 빌려 첫 예배를 드린 것은 1991년 10월 6일의 일이었다. 이날 성도들은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명자 대회의 전신이었던 비전 2000운동의 현판을 걸며

다. 준비위는 오순절의 의미를 가진 추수감사절을 교회설립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7주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새벽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교회 설립일 전 50일간 진행하고 있는 사명자대회가 된 것이다.

성도들은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으로 무장했고, 교회는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기도를 위해 '정오의 기도',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하는 '열열이 기도', '24시간 연속기도' 등을 통해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특히 '24시간 연속기도회'는 행여



사명자대회의 새로운 변화 '새생명축제'

기도의 줄이 끊어질세라 연속기도회명부를 작성해 기도자수와 시간을 안배했다. 그리고 연속기도회명부는 잘 보존하여 후대에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이중은 원로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현재까지 자료실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사명자대회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전도에 주력하는 대회인 만큼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일깨운다. 말씀을 받고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은 전도의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것이 사명자대회의 또 다른 취지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50일간 마음에 품고 기도한 전도대상자와 태신자를 위해 대회 마지막 주간에 새가족부 주관으로 '태신자 초청 잔치'를 열었고,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교회 주관 '새생명 축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도의 열을 올렸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명자대회!

(편집부)



# 우리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박두호 장로 (사명자대회위원장)

우리 서울교회는 24년 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계교회와 이웃교회를 섬기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논현동 반포동 시대를 거쳐 오늘의 대치동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희생하며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는 그 날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 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면 수요일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일기도회에 온 교회가 달려 나와 기도의 불을 밝히고 서로 만나면 부둥켜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던 그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금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24년 전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밤낮 부르짖는 50일간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비어있는 예배실은 채워지고 잊어버린 첫사랑은 회복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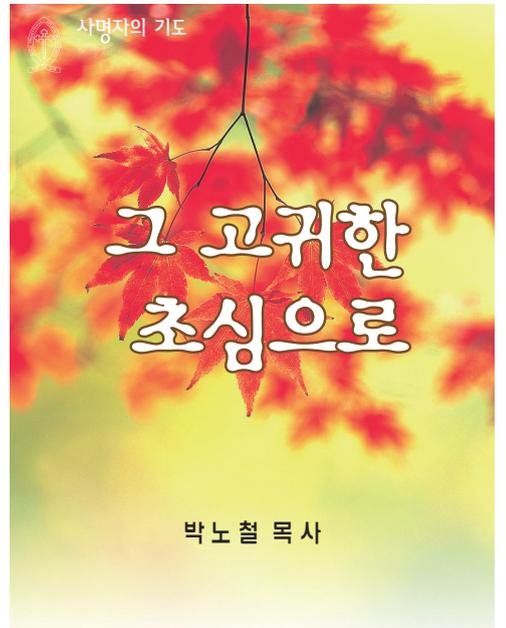
교회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사명자들로 세워져 금년 교회 설립 24주년을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부

탁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혹시 마지막 못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이제 인생의 뒤안길로 한분 한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통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아 그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복음의 사명을 교회와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2014년 사명자대회 50일을 주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열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교회사랑 영혼사랑이 구원을 위한 사명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번 2014년 사명자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박노철 목사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흐름 속에 계절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가을이 더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만 잘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2014년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 말씀으로 도전 받고 실생활 가운데 변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24년 전 그 가을처럼 우리 모두가 그 고귀한 초심으로 돌아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명자 대회의 전신이었던 비전 2000운동과 24시간 연속기도 및 성경읽기 2000년의 기록들



1991년 교회 창립전 기도로 교회설립을 준비하다



2013년 기도와 전도의 결실 '새생명 축제'

